

2019년 7월 7일(성의 큰 숲 보기 18) "시편: 시인에게 열린 창조주의 세계]_시 8편

<도입>

구약의 두번째 지혜서인 시편은 주제가 방대하여 시편을 쓴 시인들의 정황과 관점을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1] 시편이 쓰여진 자리

시편이 쓰여진 자리는 편하고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의 지으신 세계가 왜 전쟁, 미움, 고난, 가난, 압제, 불평등으로 우리를 어둡고 두렵게 할까? 이러한 회의로 인해 희망이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니 창조의 뜻과 신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에서의 부정적인 측면(대립/고난에 접한)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열린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 8 편 구조(감싸기 inclusio 구조)

- A. 1 절 - 여호와 우리 주여,
- * 2 절 - 주의 대적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 B. 3 절 - 피조물들... 하늘/달/별들..
- C. 4~6 절 - 사람이 무엇이기에...
- B'. 7~8 절 - 피조물들...
- A'. 9 절 -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은 중심 내용(C)은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ABCA'B' 구조가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엉뚱해 보이는 2 절이 끼여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처한 자리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대립/긴장 관계에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역발상적으로 거룩한 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2 절 해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아담(사람의 집단명사)을 비유한 말로써 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물리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피조물(주의 대적)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젖먹이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탁월성은 '입'을 통한 대리통치의 권세(창 2 장의 이름 붙이기)를 가진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비추면서 어린아이들의 말까지도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입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 참고: 2 절 "주의 대적" - 창조 때 통제하셨던 대적들(창 1:21 '커다란 바다 짐승들'). 시 74:13-14 "...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계를 제어하심을 보고, 사람에게 입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대하시는 지를 깨달았습니다.

[2] 인간의 진면모를 보다!

시인은 8 편의 중앙에 위치한 4-6 절에서 말하는 창조하신 사람의 존귀함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천대하고 비하하지 않는 한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 방식이나 말투나 습관은 부족하여 비판 받을 수 있고 고칠(또는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못 배운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못 보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간 우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애당초 사람은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지어졌는가? 이것은 내 이성과 느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과 같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대해 어떤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열악한데 가치만 높다고 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이런 계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시인의 관점을 공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대적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창조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사랑받는가를 발견하니 그의 생각과 삶은 반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시인의 특징

시편을 보면서 가장 의심되는 것은 저자들의 잔인하고 가혹한 표현입니다.

예: 시 137:8(읽음) 고결하고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면 좋을 텐데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죽기를 바란다니 폭언과 저주에 가깝습니다. 시인은 이미 이런 패배적/부정적 정황아래 있었음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시인은 대적의 상황 속에서 자기 속사람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자신의 골방을 찾아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정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그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골방을 몰래 엿보는 자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결과로 어떻게 받아 주시고 응답하시는 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시인의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는 착하게 나아가고, 사람에게는 자기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솔직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의 부정한 것이라도 내어놓으며(무례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맺음>

시인의 정직함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창조주와 창조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 삶에 영생이 임하는 길은,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도 내어 드릴 때 받아 주시고 선하심으로 반전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시인이 시편을 쓸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8 편, 1 편, 23 편을 보면서 찾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2. 위의 [3]에서 말한 시인의 정직함에 대하여 느낀 바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왜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언제 가장 정직합니까?